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는 랑가라 스테이션에 가까우면서 앞에 버스도 오기 때문에 학교오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버스와 캐나다라인도 배차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학건물은 매우 많고 시설도 무척이나 좋으며 전체적으로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수업내용은 전반적인 세계의 문화와 글로벌 에티켓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팀별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수업은 9시부터 3시까지며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분반은 첫날에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나눠졌으며 이번에는 9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 6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반에는 순천향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섞여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다양한 문화 차이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사는 cristy 선생님이로 무척 좋았습니다. 과제는 reflective journal로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자아성찰에 큰 도움 일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수업뿐만아니라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위해 아쿠아리움, 박물관, whistler 등을 가고 카약킹등을 통해 평소에 겪어 보지 못했던 것을 할수 있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수 있어 좋았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학교에서 deepcove로 카약을 타러가고, 스탠리 공원안에있는 아쿠아 리움을 가는 등 학교에서 가는 활동들은 따로 돈이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록아웃, 캐필라노 등 다양한 곳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사비로 갑니다. 준비물로는 선글라스와 모자 선크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한신발과 슬리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일교차가 매우 심한편이고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날씨는 한국보다 10도 정도 낮았고 쾌적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햇빛은 무척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선크림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매우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리스와 마리화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거나 하였지만 매우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숙소는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무척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느껴 무척 좋았습니다. 홈스테이에 저랑 다른 나라의 학생과 함께 지냈는데 평소에 하지 못할 경험들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집안분위기를 느껴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기타() 홈스테이에서 점심을 싸주기 때문에 점심은 항상 홈스테이에서 가져온 것을 먹었고 저녁도 홈스테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외부식당에서도 밥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듭니다.
교통	정말로 교통이 잘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이 멀더라도

	크게 통학이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스를 다른 버스로 갈아타서 학교에 가거나, 버스를 타고 캐나다라인을 타고 학교를 가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학교를 통학하였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다양한 activity	100,000	캐필라노, 록아웃 등등
식비	300,000	다양한 식당을 가보고 싶어 밥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웃렛	150,000	옷과 가방
기념품	100,000	메이플시럽 및 기념품
합계	6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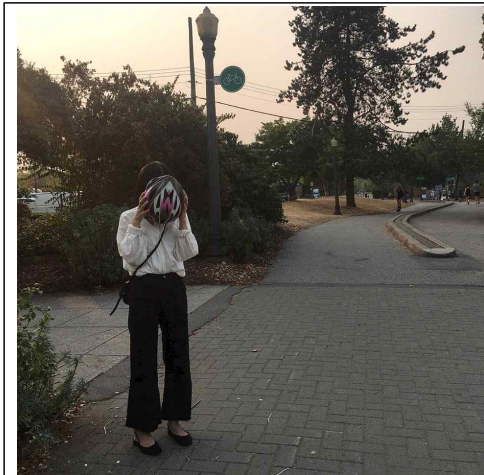
선글라스 ,선크림 등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을 위한 선물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물놀이의 준비를 해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한국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면 한국 음식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권도 사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현지에서 되어야지 교통편이나 홈스테이 가족들과 소통할수 있기 때문에 유심을 사서 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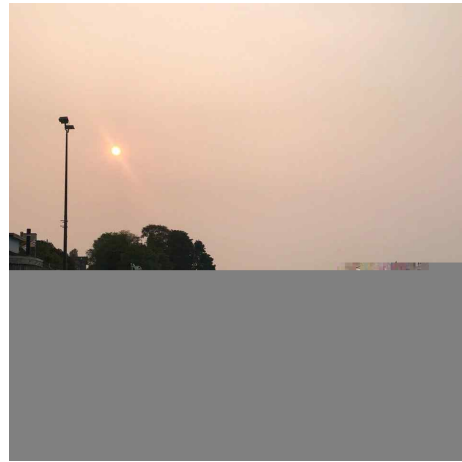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한 일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좋았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deepcove에서의 카약킹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너무 좋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캐필라고 브릿지와 록아웃, 캐나다 플레이스 등을 가고 키칠라노 풀에서 수영을 하고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그곳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밴쿠버에는 UBC라는 큰 대학이 있는데 무척 크고 구경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고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과 만나면서 저의 세계관이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집에 갈 때 쯤에는 너무 정이 들어 헤어지고 싶지 않아 눈물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더욱 영어를 잘하고 싶어졌고 영어권에서 앞으로 생활해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토익과 토익스피킹을 더 열심히 해서 외국인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키칠라노 비치의 pool에서 수영했습니다.



랑가라대학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데이입니다.

whistler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화이트락에 놀러갔습니다.



캐필라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